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1:25-36(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25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26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27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과 맺을 내 계약이다."

28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란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29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30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31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 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33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35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니까?

36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바울이 밝히는 '신비'는 무엇인가요? (25-26절)

→ \_\_\_\_\_

-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이야기 하나요?(28-31절)

→ \_\_\_\_\_

- 33-3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고 있나요?

→ \_\_\_\_\_

-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 \_\_\_\_\_

-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 인가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불안, 의심,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감 중 어느 쪽이 더 많나요?

→ \_\_\_\_\_

-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경험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의 삶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_\_\_\_\_

-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1:25-36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

하나님의 종말적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 동안은 완악한 채로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이 구원 섭리의 절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두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 만민에게 열려있음을 강조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벌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심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허락하신 공의가 있기에, 낙심하여 쓰러질 수도 없으며 쇠하여 꺼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후회가 없도록 충성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6. 기도